

지역 소식통

김제시 읍면동 맞춤형복지 추진강화 정책설명회 개최

김제시(시장 이권식)는 1일 교월동행정복지센터에서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강화 및 맞춤형복지 업무매뉴얼 교육을 통한 복지허브화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현재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읍면동의 복지행정팀 전담직원은 물론 일반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하여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현황과 읍면동 맞춤형복지업무 매뉴얼"을 설명하는 것으로 업무연찬을 실시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농기센터, 벼 재해보험 판매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춘기)는 가뭄에 이어 잠파, 태풍, 폭염 등 매년 되풀이되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시 보상 받을 수 있는 벼 농작물 재해보험이 인기라며 벼 수확 감소에 따른 재배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도모하기 위해 벼 농작물 재해보험이 6월 9일까지 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전년도(2016년)에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한 벼 농작물 피해가 없었으나 농가가 낸 보험료의 60~70%를 돌려 받을 수 있는 '무사고 환급제도' 도입으로, 큰 피해가 없었던 지난해 12월경 농가에서 신청하지 않아도 농가 부담 보험료를 환급받으므로,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어 보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에너지 진단 실시

완주군은 5월부터 군내 녹색생활 실천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진단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완주군은 2017년도 녹색아파트와 녹색마을로 선정된 4곳, 200여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진단·컨설팅을 실시하고, 에너지 진단 참여자에게는 절전 콘센트 등 에너지 절약 물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에너지 진단 컨설턴트가 각 가정, 상가, 학교를 방문해 대기전력 측정 및 에너지 사용량 수집·분석, 생활 속 에너지 절약방법,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 안내,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서약 및 탄소포인트제 가입 안내 등 녹색생활 실천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윤재봉 환경위생과장은 "지구의 이상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군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노력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녹색생활실천에 따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에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 한우 숯불구이 축제 개최

고산미소 광장서 4일부터 6일까지... 첼판스테이크 시식·한우정량달기 등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완주군 고산미소 광장에서 이달 4일부터 5월 6일까지 '한우 숯불구이 축제'가 열려 소비자들이 우수한 품질의 한우고기를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게 된다.

1일 완주군에 따르면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지원하고 전국한우협회전북도지회와 완주군한우협동조합에서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한우 할인 공급을 통해 소비자는 가격 부담을 덜고,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어려움을 겪는 한우 소비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히 전국 11개 시·도에서 열리는 데, 전라북도는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

를 위해 완주군의 고산미소 시장에서 개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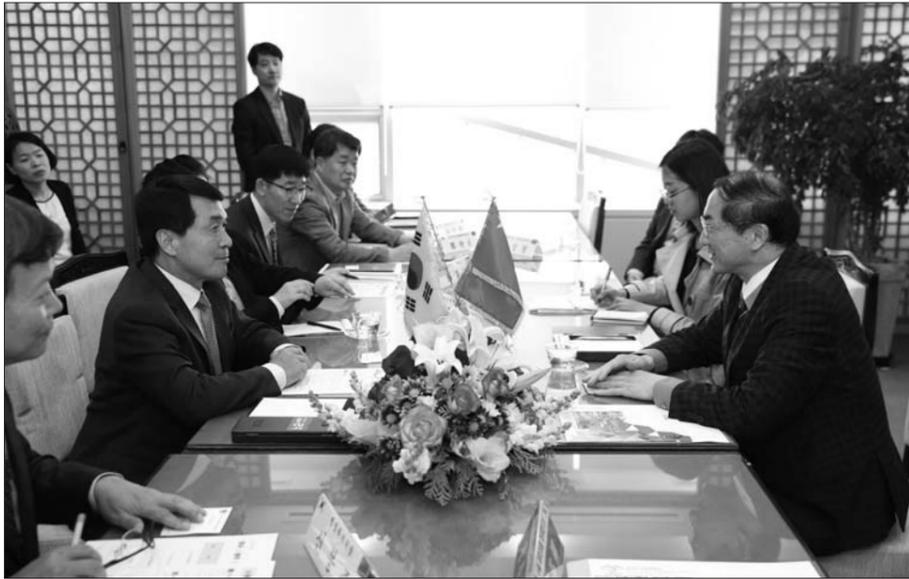
'한우 숯불구이 축제'에서는 한우농가가 직거래로 판매해 믿고 먹을 수 있는 질 좋은 한우고기를 현장에서 구매해 숯불구이존에서 바로 구워 먹을 수 있다.

무엇보다 한우 등심을 100g당 1등급 5500원, 1+등급 6800원, 1++등급은 7800원에 판매하고 정육(국거리, 불고기)도 1등급 2800원, 1+등급 3000원, 1++등급 3200원에 판매하는 등 대형 유통마트보다 최대 35% 가량 저렴한 가격에 한우를 판매하여 소비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경매이벤트, 한우첼판스테이크 시식, 한우정량달기 등 각종 체험 및 경품행사를 계획하고 있어 가족단위 방문객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박성일 완주군수는 1일 오후 중국 총영사로서는 처음으로 완주를 방문하는 쑤셴위(孫顯宇)주(駐)광주 중국 총영사를 접견하고 환담을 나누었다.

박성일 완주군수, 쑤셴위 中 총영사 접견

로컬푸드·경제교류에 관심

박성일 완주군수는 1일 오후 중국 총영사로서는 처음으로 완주를 방문하는 쑤셴위(孫顯宇)주(駐)광주 중국 총영사를 접견하고 환담을 나누었다.

쑤 총영사는 앞선 4월 27일 완주군 소재 대표기업인 현대자동차 공장과 하이테크로 공장을 찾아 산업·경제

분야 교류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으며 5월 1일에는 완주 로컬푸드 매장을 직접 찾아 지역 농산물 생산·소비 선순환 시스템을 견학하는 등 완주군에 대한 큰 관심을 표명했다.

1일 오후 박 군수는 쑤 총영사의 완주군 방문을 환영하면서 "완주 로컬푸드는 2012년 용진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을 시작으로 2016년 한해 매출액이 447억에 이르는 등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농촌의 성공적 모델로

자리 잡았다"고 소개한 뒤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KCC, LS엔트론, 하이테크 등 완주 산업단지에 510개 업체가 입주하여 최적의 조건하에서 활발히 기업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대 중국 경제교류에 대한 의지를 전달했다.

쑤 총영사는 주한중국대사관과 주북한중국대사관 근무, 주청진(함경북도) 총영사를 역임하는 등 중국 외교계에서 한반도 전문가로 통한다.

/완주=이종복 기자

'웃음꽃 가득, 사랑·행복 넘친다'

김제지평선아카데미 5월 강연

시민과 함께하며 미래를 위해 배우고 기쁨을 나누는 보람으로 매주 운영중인 김제지평선아카데미가 숲은 더 푸르고 하늘은 더 맑고 청명함이 가득한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지친 일상에 가족들의 사랑과 웃음이 가득할 바라는 의미로 '웃음꽃 가득, 사랑과 행복이 넘친다'라는 테마로 알찬 강연을 준비했다.

5월의 첫 강연인 4일(제511회)에는 김주연 부부행복연구소 소장을 초청하여 '은퇴 후 부부생활을 위한 행복전략'이라는 주제로 은퇴 전후의 부부갈등의 원인과 해결법 등 사례를 통한 행복한 부부생활 전략에 대한 강연을 한다.

11일(제512회)에는 '육동자', '마백이'란 애칭으로 잘 알려진 정종철 개그맨을 초청 "꿈꾸는 자가 되자"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자신이 꿈꾸었던 개그맨이

되기까지의 인생 이야기를 재치 넘치는 입담으로 풀어내며 큰 웃음과 깊은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18일(제513회)에는 문철상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을 초청하여 "꿈이 있는 삶"이라는 주제로 그간 살아온 인생사와 더불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강연을 준비했다.

5월의 마지막 강연인 25일(514회)에는 순정필 평택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를 초청하여 "성공하는 사람에게 magic word가 있다"라는 주제로 자신감을 잃은 사람, 공감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매지 위트를 읽혀서 일상속에서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고 상대방을 칭찬하면 그것이 곧 메이리가 되어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내용으로 강연을 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여성가족과, 친자연적 장례문화 확산 설명회

김제시 여성가족과(과장 최일동)에서는 1일 청원초회 시 '친자연적 장례문화 확산을 위한 설명회'를 가졌다.

보건복지부와 (재)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 연계하여 주관하는 설명회는 그동안 읍면동 및 사회단체 등을 순회하며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이번에는 김제시 공무원 4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자연장 교육영상 시청, 견학하고 품위 있는 친자연적 장례문화 안내, 불법 묘지 설치예방 안내, 자연장지 조성 사례 등을 소개하고 자신이 직접 장례방법과 용품 등을 정할 수 있는 "장수행복노트"를 교재와 함께 제공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자연장(自然葬)은 화장한 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장사하는 친환경적 장례문화로, 자연환경의 지속이 가능하고, 경제적이며, 생활공간 가까이 설치 할 수 있어 접근성이 용이한데다, 화초·잔디·수목 등 다양한 형태로 조성 가능한 장점이 있다.

김제시는 최근 불법묘지 설치에 대한 민원 발생으로 인한 다문화 서남권 추모공원 화장 시설 이용 이후 화장물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자연장지 및 봉안시설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완주군선관위, 장날 이용한 투표참여 캠페인 실시

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방창현)는 오는 5월 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최근 삼례읍 재래시장에서 직원, 공정선거지원단 등 11명이 참가한 가운데 방문객과 시장상인을 대상으로 장날을 이용한 투표참여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바로 알고 투표하는 선거문화 확산과 투표 참여 유도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사전)투표 시간 안내가 부착된 물티

슈와 안내 리플릿 배부를 통해 대통령선거 투표권을 포기하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한편, 완주군선관위 한승현 관리계장은 "유권자 모두 이번 5월 9일 대통령선거에 소중한 권리인 투표권을 꼭 행사해주시기 바라며,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면 사전투표기간(5월 4일~5월 5일)을 이용하여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해달라"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